

양막 파열이 없는 심한 양수 과소증 태아에서 양수 주입술이 초음파 진단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학교실
최상준 · 강민창 · 임주성 · 박준선 · 조혜진 · 김태중 · 김 산 · 송창훈 · 정 혁

● 목적

임신 중반기에 양막 파열이 없는 심한 양수 과소증 산모의 초음파 검사에서 초음파 영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양수를 주입하였을 때 진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2000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양막 파열이 없는 심한 양수 과소증이 있는 임신 중반기(midtrimester) 산모 8예를 대상으로 양수 주입 전과 양수 주입 후에 초음파로 보이는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비교하였다.

● 결과

양수 주입 후에 태아의 전체적인 영상은 31%($p=0.08$) 증가하였다. 태아에게 양수 주입 전에 태아 신장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다른 기형의 발견도 증가하였다. 양수 주입술 후 진단된 기형은 양측 신형성 부전(bilateral renal agenesis) 3예, 양측 다낭포성 신장(bilateral polycystic kidney) 2예, 다낭성 신장(multicystic dysplastic kidney) 2예, 기타 1예로 모두 치명적인 기형이 발견되어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였다. 양수 주입 후에 조기양막 파수, 융모양막염, 양수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은 발병되지 않았다. 통계학적 검증은 Sign test로 하였고 p 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 결론

본 연구 결과 양막파열이 없으면서 심한 양수과소증이 있는 경우 양수 주입술이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호전시키고 동반된 질환의 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